

# 한국의 뉴스 번역 참여자 간 권력 관계<sup>1)</sup>를 반영한 게이트키퍼 수정 모델 —슈메이커의 모델을 중심으로

홍 정 민  
(이화여대)

## 1. 서론

최근 유럽 재정 위기, 미국 경기 둔화 등 해외 요인들이 국내 금융 시장과 거시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각 언론사를 통해 번역되는 외신 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언론사 간 경쟁 심화로 한국어 기사를 외국어로 전달하는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

1) 본 논문은 상호작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각 뉴스 번역 참여자들이 가진 영향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역학 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권한(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보다는 ‘권력(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단어 의미는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

현재 2010년 국내 발행부수 5대 신문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sup>2)</sup> 모두가 영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중국어와 일본어, 매일경제는 중국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최대 종합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경우 이들 언어는 물론 스페인어와 불어로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력, 언론사의 수익 기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적 뉴스 전달 작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뉴스 번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 한국어와 영어 간 뉴스 번역을 중심으로 이미 수많은 연구가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텍스트 처리 양상이나 전략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 번역 업무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권력 관계를 이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에 기반하여 고찰한 조사는 드문 실정이다<sup>3)</sup>. 홀츠-만타리(Holz-Mantari)가 번역행위이론에서 번역 참여자들의 역할과 이들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듯<sup>4)</sup> 번역 과정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처리 전략뿐

2) 한국 발행부수공사(ABC) 협회 2011년 12월29일 발표 통계 기준

3)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뉴스 번역’과 ‘기사 번역’을 키워드로 관련 논문을 검색한 결과, 2000년 이후 한국어와 영어 간 뉴스 번역에 대해서는 박중철(2000)의 TV 방송 프로그램 번역 방법 연구, 이창수(2004)의 방송뉴스 번역에서의 정보구조 변화 연구, 이지연(2006, 2007)의 TV 방송기사 번역의 특성과 전략 분석, 강지혜(2008a, 2008b)의 번역기사 제목에 관한 연구 및 번역에서의 인용에 대한 연구, 김진원(2010)의 번역 기사의 프레임 분석 등의 연구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이미경(2011)의 도착 언어 독자의 지식을 고려한 뉴스 번역 전략 연구, 최희경(2012)의 IT 뉴스 영한 번역에 나타난 영어 영향 분석, 서주희(2012)의 영한 뉴스 미디어 번역에서 평가적 의미의 번역 전이 양상 고찰 등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한국어와 중국어 간 뉴스 번역에서는 왕조외(2006)의 한중 오역 분석 연구, 황은하(2009)의 한·중 인터넷 신문 기사 표제 병렬 말뭉치 연구, 강수정(2011)의 중국 뉴스 매체의 한국뉴스 편역 보도에 관한 연구, 한국어와 일본어 간 뉴스 번역에서는 김한식(2010)의 가독성 요인별 표현 분석을 통한 번역 전략 연구, 이주리에(2011)의 기사문 번역의 재맥락화 양상에 대한 고찰, 박미정(2011)의 인터넷 신문 국제 기사 한일 번역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등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이 뉴스 번역의 양상과 전략을 언어적, 텍스트적으로 분석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언어 간 번역은 ‘원천 텍스트로부터의 번역 행위’이며 일련의 역할과 참여자가 관련

아니라 참여자들의 역할 간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뉴스 번역은 하나의 목표 텍스트(TT) 생산에 여러 주체들이 개입하는 공동작업의 성격이 짙은 만큼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찰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내 뉴스 번역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권력 관계를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뉴스 번역 과정을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사용되는 ‘게이트키퍼(Gatekeeping)’의 관점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게이트키퍼란 특정 게이트에 위치한 게이트키퍼들이 정보의 통과 여부와 변형을 결정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Vuorinen 1995: 161)로 뉴스 번역의 각 단계에 위치해 TT에 변형을 가하고 이를 다음 단계로 넘기는 참여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관련 모델을 기반으로 뉴스 번역 참여자들이 게이트키퍼로서 최종적인 TT의 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할 경우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권력 관계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모델 가운데 본 연구가 활용할 분석의 틀은 뉴스 조직 내 게이트키퍼 과정을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Vuorinen 1995: 165-66) 슈메이커(Shoemaker 1991)의 다층 게이트키퍼 모델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 조직 내 뉴스 번역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권력 관계를 단순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시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시도는 번역학 내 학문적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뉴스 번역에 관심이 있는 미래의 번역사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당면할 수 있는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도록 돕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 번역사뿐 아니라 언론사 국제부 기자, 에디터(편집자)<sup>5)</sup>, 감수자<sup>6)</sup> 등 뉴스 번역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된 의사소통과정이다(1984: 109-11, Munday 2008: 78 재인용).

5) 편집(editing)은 신문·잡지·서적·텔레비전·영화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 용어로, 광고의 편집은 기획, 취재, 글쓰기, 제목달기, 교열, 사진, 디자인, 인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협의의 편집은 취재부와 사진부에서 글과 사진을 받아 지면을 관리하고 완성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고경태 2009: 20, 23-24). 본 논문에서 편집은 뉴스 생산 과정 중 하나의 단계로서 협의의 편집을 의미하며, 따라서 에디터(편집자)라는 용어 역시 협의의 편집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규정하고자 한다. 언론사에서 에디터(편집자)는 편집기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김경환·김지용(2009)에 따르면 편집기자의 주

들에게도 뉴스 번역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번역학은 물론 언론학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학제 간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기반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한국에서 언론사의 뉴스 번역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게이트키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둘째, 게이트키퍼로서 뉴스 번역 참여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며, 어떠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셋째, 슈메이커의 게이트키퍼 모델은 이들 사이의 실제 상호작용과 권력 관계를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뉴스 번역 및 참여자 역할의 특수성

바니(Bani 2006: 35)는 뉴스 번역이 엄청난 수의 독자들(문학 혹은 희곡 번역의 독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 분명한)에게 소비되면서 이들의 의견 수렴과 세계에 대한 인식 정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뉴스 번역은 독자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 번역과는 다른 전략과 판단이 요구되며 이를 수행하는 주체들 역시 특수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 받는다. 따라서 뉴스 번역 과정과 뉴스 번역 담당자들의 작업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여타 텍스트 번역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 실제로 바스넷(Bassnett 2006: 6)은 뉴스 번역을 단순히 텍스트A에서 텍스트B로의 언어 간 전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텍스트A를 대대적으로 개작하고 종합하는 작업으로 보아야 하

요 업무는 협의의 편집이라는 차원에서 기사의 취사선택, 제목의 결정, 지면의 구성 등이다(163).

- 6) 감수는 주어진 텍스트를 사전에 정해진 언어적 기능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되며(Horguelin & Brunette 1998: 3-7, 이항 2003: 172 재인용), 감수자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기 때문에 여타 문서 번역에 적용되던 기존의 기준으로 이들을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뉴스 번역사들은 24시간 실시간 속보 제공, 간결한 형식에 대한 수요라는 엄청난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타 텍스트 번역사들과는 작업 환경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뉴스 번역 및 뉴스 번역사 역할이 이처럼 특수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뉴스 번역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차이(Tsai 2005: 148)는 국제 통신사의 번역 및 텍스트 처리 과정에는 종합(Bassnett 2004; Cheng 2002), 재구성, 삭제, 추가, 일반화, 개작(Cheng 2002; Fujii 1988; Li 2001) 등의 핵심 전략들이 개입된다면서 이로 인해 [방송사 내] 번역사의 역할이 특수성을 띠며 번역의 정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바스넷(2004)은 뉴스 번역 작업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주목, 국제 뉴스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번역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뉴스 통신사를 통해 정보가 변형되고 편집되고 종합되어 다른 문화로 전달되는 과정도 여전히 번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니(2006: 35)의 경우 뉴스 번역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일반적으로 신문에서는 다른 언어로 쓰인 보도 자료를 편집하고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번역하는 등 뉴스 번역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개작(Lefevre 1992)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 가운데 강수정(2011)은 뉴스 번역에서는 언어, 문화는 물론 뉴스 쓰기 방식의 차이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여타 번역과는 다른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는 중국 번역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중국의 뉴스 번역에서는 원문 뉴스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고 가공하고 종합하는 ‘편집(edited translation)’ 현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5-7). 강지혜(2008a)의 경우 『뉴스위크(Newsweek) 한국판』이 제목을 원문 기사에서 그대로 번역하기보다 편집부에서 새롭게 작성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제목이 번역된 기사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제시되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역시 번역된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고 말한다. 이어, 특정 텍스트가 번역으로 간주되는 데는 ST의 존재나 언어 전환 과정의 유무보다 목표 문화권에서의 인식이 우선한다는 투리(Toury)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제목도 ‘번역’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7-8).

이처럼 단순한 단어 치환은 물론 재구성, 개작, ST가 없는 텍스트 작성 등

뉴스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텍스트 처리 작업을 모두 ‘번역’으로 인식하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뷰오리넨(Vuorinen 1995)은 쿠코넨(Kukkonen 1989), 오포(Offor 1993) 등의 연구를 인용, 핀란드의 한 통신사(Finnish News Agency) 소속 국제 뉴스 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의 일을 ‘번역’이 아닌 ‘편집(edit)’ 혹은 ‘외국의 소재를 기반으로 한 핀란드어 기사의 생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태도가 편집은 능동적인 의사결정 및 창조성이 개입되는 과정인 반면 번역은 수동적이거나 심지어는 맹목적인 모방이라고 보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전반적인 뉴스 텍스트 생산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다양한 요구와 제약에 대응하는 일련의 작업인 반면 번역은 결과물의 기능적 품질과 상관없이 원천 텍스트(ST)를 가장 중시하는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뷰오리넨은 번역에 대한 이러한 협소한 정의는 “몇 안 되는 선별적인 사례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가장 실제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데 부적합할 위험이 있다”(Delabastita 1989: 214, 1995: 170 재인용)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집, 개작 등과 관련된 텍스트 작업도 번역의 일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 역시 뉴스 번역의 범위와 정의 확대를 지지하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ST를 직역하는 것에서 독립적인 취재나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ST가 없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국제 뉴스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텍스트 처리 작업을 ‘뉴스 번역(news translation)’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현재 일부 언론사의 영문 뉴스 홈페이지에서 ST 없이 별도로 생산되는 영문 기사들이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확대된 뉴스 번역의 정의 하에서는 번역사, 기자, 에디터, 데스크<sup>7)</sup> 등을 모두 ‘뉴스 번역의 참여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들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7) 데스크는 편집국장의 대행자로서 각 면(面) 제작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데스크는 올바른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사 원고를 신중히 분석하고 검토한다. 기대에 미치지 않는 기사는 가릴, 삭제, 정정한다(안병찬 1993: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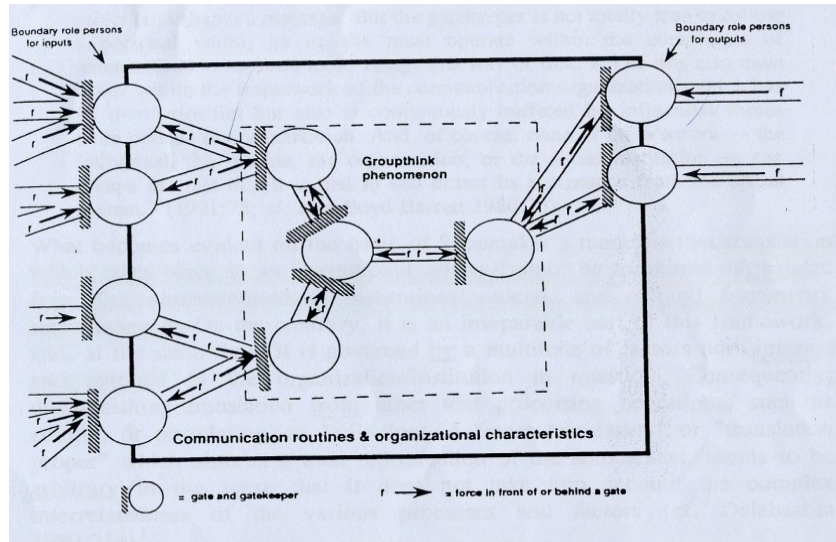
## 2.2. 뉴스 번역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게이트키프 모델

이처럼 특수한 뉴스 번역 과정과 번역 참여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언론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게이트키프 개념을 뉴스 번역에 적용한 연구다. 게이트키프는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통과하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통제 기능은 정보 경로의 특정한 전략적 위치, 즉 게이트에 있는 게이트키퍼들이 수행한다. 뉴스 번역에서는 특정한 기사나 기사 소재가 선정되고 번역된 후 편집과 감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출고되는 각각의 과정을 게이트키프으로, 각 단계에서 이러한 작업을 담당하는 번역사, 기자, 에디터, 감수자, 데스크 등을 모두 게이트키퍼로 볼 수 있다.

뉴스 번역에서의 게이트키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많은 학자 가운데 맥넬리(John T. McNelly)는 국제 뉴스가 외국의 기자, 에디터, 정리 기자(rewritemen), 편집 기자(deskmn) 등 일련의 게이트키퍼들을 통과하는 단계적 흐름을 도식화해 보여주었으며(1959: 25) 후지이(Akio Fujii)는 일어에서 영어로의 뉴스 번역 연구에서 웨슬라-맥린(Westley-MacLean)의 모델(1957)을 수정 적용하고 뉴스 번역사가 수행하는 네 가지 게이트키프 기능으로 메시지의 양 조절, 변형, 보충, 재구성 등을 제시했다(1988: 36).

뷰오리넨(1995)의 경우 후지이가 적용한 웨슬라-맥린의 모델이 다소 추상적이며 게이트키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165) 슈메이커(1991)의 다층 게이트키프 모델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게이트키프으로서의 뉴스 번역을 연구했다. 슈메이커의 다층 게이트키프 모델은 여러 커뮤니케이션 조직들 사이의 게이트키프 과정 모델과 이 모델의 일부를 확대한 조직 내 게이트키프 과정 및 개인의 내적 게이트키프 과정 모델로 구성된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분석 모델로(Vuorinen 1995: 165-166), 본 연구 역시 이에 기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언론사 조직 내 뉴스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자 간 상호작용 고찰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 가운데 특히 조직 내 게이트키프 모델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그림1〉 슈메이커의 조직 내 게이트키퍼 모델(1991: 73) (출처: Vuorinen(1995: 167))



\*도형 설명

|                 |  |
|-----------------|--|
| 굵은 실선 사각형       | 커뮤니케이션 조직(ex. 뉴스 통신사, 신문사)   |
| 원               | 개별 게이트키퍼   |
| 사각형 가장자리의 원     | “경계역할(boundary role)” 게이트키퍼로, 유출입되는 메시지나 정보를 여과하면서 다른 조직 및 외부 사람들과 상호작용(Shoemaker 1991: 17, 56-57). 왼쪽은 유입되는 메시지나 정보를, 오른쪽은 유출되는 메시지나 정보를 담당하는 경계역할 게이트키퍼. |
| 원 옆의 회색 수직 막대   | 게이트  |
| 화살표             | 메시지의 게이트 통과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forces)   |
| 화살표를 둘러싼 직선     |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메시지나 잠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로(channels).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경로들이 각 게이트 및 게이트키퍼로 들어가거나 이들로부터 나옴.  |
| 직사각형 내부의 점선 사각형 |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 집단사고 현상(groupthink phenomenon) <sup>8)</sup>   |

<그림1>은 슈메이커의 조직 내 게이트키퍼 모델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게이트키퍼 과정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조직에서 경계역할을 수행하는 게이트키퍼들은 선별한 메시지들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게이트키퍼들에게 전달한다. 이 내부 게이트키퍼들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다시 선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처리된 메시지는 또 다른 경계역할 게이트키퍼에게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선택, 형성, 출고된다. 예를 들어 신문사 조직 내에서 일하는 번역사는 내부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경계역할을 하는 기자가 번역을 위해 선별하고 사전 편집한 텍스트를 받아 TT를 생산한 뒤 이를 또 다른 내부 게이트키퍼나 경계역할 게이트키퍼에게 보내 최종 출고를 위한 추가 처리를 거치도록 한다(Vuorinen 1990: 123, 1995: 167 재인용). 또, 업무의 조직 방식에 따라 경계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들이 번역을 수행할 수도 있다(Vuorinen 1995: 167). 뷰오리넨은 이러한 조직 내 게이트키퍼가 해당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관행과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 언론사 조직의 특성과 각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이 게이트키퍼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 3. 연구 방법

#### 3.1. 인터뷰 대상 및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 내 언론사의 뉴스 번역 참여자 현황과 게이트키퍼로서 이들의 역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권력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게이트키퍼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국제 뉴스를 제공하는 5개 언론사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 활자 뉴

8) 사람들이 결속력 있는 내집단(ingroup: 개인이 규범·가치·습관·태도 등에서 공통점을 느껴 동지의식(同志意識)을 가지고 집단에 대해 애착·충성의 태도로 임하는 집단에 깊이 관여할 때 나타나는 사고방식으로, 완전한 합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열망이 강해 그 밖의 행동 대안들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현상(Jamis 1983, Shoemaker 1991: 28 재인용). 집단사고는 자기 집단의 권력 및 도덕에 대한 과대평가, 편협성, 집단 구성원에 대한 확일성 압력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Shoemaker 1991: 29).

스 번역에 참여하고 있는 내부 및 외주 번역사, 기자, 데스크 등 5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면대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대상의 소속 언론사는 연합뉴스(국내 최대 종합 뉴스 통신사), A 신문사(종합 일간지), B 신문사(종합 일간지)<sup>9)</sup>, 로이터 통신(영국 통신사)<sup>10)</sup>, 이데일리(인터넷 경제 신문) 등으로 가급적 다양한 매체 유형과 성향을 반영해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언어 방향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한영 번역 서비스(연합뉴스, A 신문사, B 신문사)와 영한 번역 서비스(로이터, 이데일리)를 함께 조사했다.

인터뷰 대상으로는 번역사, 기자, 데스크 등 다양한 직함을 가진 주체들을 선정해 번역, 편집, 감수 등 본 연구가 ‘뉴스 번역’으로 규정하는 모든 텍스트 처리 절차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했다. 단, 뉴스 번역의 전반적인 과정이 언론사 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외주 번역사나 번역 업체는 제외했다.

인터뷰는 1시간 내외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직함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전에 계획된 질문을 기반으로 하되 실제 면접 상황에 따라 이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Richards, 2009)을 택했다. 질문지에는 1) 뉴스 번역 담당 조직의 구성 및 구성원, 2) 전반적 업무 흐름 및 구성원 별 역할, 3) 구성원의 의사소통 및 권한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문항들을 기본적으로 포함했다(인터뷰 질문지는 <부록> 참고). 또 정확한 기록을 위해 사전에 동의한 3명(로이터, 연합뉴스, 이데일리)의 인터뷰 내용을 녹음해 두었으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이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보충했다. 인터뷰 후에는 각 대상들의 담화문을 진사하고 정리해 실제 뉴스 번역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상호작용과 권력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 3.2 인터뷰 대상 직함 및 경력

인터뷰 대상의 구체적인 프로파일은 <표>1과 같다. 이들은 짧게는 3년, 길게

9) A와 B 신문사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명을 명시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

10) 로이터통신은 자회사인 로이터코리아를 통해 한국에서 영문 및 한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는 11년 동안 뉴스 번역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로 각 언론사의 뉴스 번역 현황에 대해 충분히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sup>11)</sup>

<표1>에서 알 수 있듯 인터뷰 대상들은 하나의 직함 아래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A 신문사, 로이터, 이데일리)하거나 동일한 직함을 가졌더라도 소속 언론사에 따라 다른 업무를 담당(연합뉴스, 로이터, 이데일리의 기자)하고 있었다. 이들의 직함이 시사하는 역할과 실제 역할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기자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주로 번역이나 편집 업무를 담당(로이터)하거나 번역사가 편집과 감수 업무에 치중(A 신문사)하는 등 직함만으로는 실제 업무 영역과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텍스트 처리 작업이 개입되는 뉴스 번역 과정의 특성상 취재, 번역, 감수, 편집 등 각 업무 영역 간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하고 공통된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스 번역의 각 참여자들을 직함으로 지칭하되 이들이 직함과 다른 역할을 수행할 때는 ‘담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직함이 기자이더라도 편집 업무를 수행할 때는 에디팅 담당자, 번역 업무를 수행할 때는 번역 담당자로 지칭하겠다.

<표1> 인터뷰 대상의 프로필

| 소속 언론사        | 직함                 | 실제 역할  | 경력                                     |
|---------------|--------------------|--|--|
| 연합뉴스<br>(한영)  | 국제국<br>영문뉴스부<br>기자 | 주로 한글 취재를<br>기반으로 한 영문<br>뉴스 작성                  | 영문 취재 경력 약 11년                         |
| A 신문사<br>(한영) | 영문 뉴스팀<br>번역사      | 한글 기사의 영문<br>번역본 감수 및 편집.<br>기사 번역은 거의<br>하지 않음. | 국제 뉴스 번역 경력 약<br>7년 중 감수 경력 4년         |
| B 신문사<br>(한영) | 온라인<br>영문판<br>데스크  | 한글 기사의<br>영문 번역본 감수 및<br>출고                      | 국문 취재 경력 약 20년<br>중 영문 뉴스 데스크 경력<br>2년 |

11) 본 논문에 기재된 모든 경력 사항은 인터뷰를 실시한 2011년 말 기준.

|                |              |   |   |
|----------------|--------------|---|---|
| 로이터 통신<br>(영한) | 한글 번역팀<br>기자 | 영문 기사 번역,<br>한글번역본 편집,<br>국제 사안에 대한<br>한글 기사 작성 | 국제 뉴스 번역 및 편집<br>경력 약 9년                |
| 이데일리<br>(영한)   | 국제부<br>기자    | 영문 기사 번역,<br>국제 사안에 대한<br>한글 기사 작성              | 국문 취재 경력 약 11년<br>중 국제 뉴스 번역 경력<br>3.5년 |

#### 4. 연구 결과 및 분석

##### 4.1. 뉴스 번역 담당 조직 구성

<표2>는 각 언론사별 뉴스 번역 담당 조직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언론사마다 뉴스 번역 담당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들 조직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데스크, 기자, 에디터, 내부 번역사, 외주 번역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 방향에 상관없이 데스크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취재 경력이 있는 기자 출신이었고 한영 번역의 경우 에디터는 모두 영어 원어민이었다. 기자들의 경력은 3년부터 15~16년, 번역사들의 경력 역시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까지 다양했다.

<표2> 언론사별 뉴스 번역 담당 조직 구성<sup>12)</sup>

| 언론사 \ 직함 | 데스크 | 에디터 | 기자                     | 내부<br>번역사 | 외주<br>번역사 |
|----------|-----|-----|------------------------|-----------|-----------|
| 연합뉴스     | 2   | 2   | 20                     | 0         | 0         |
| A 신문사    | △   | △   | 0                      | △         | △         |
| B 신문사    | △   | △   | 0                      | 0         | △         |
| 로이터 통신   | 2   | 0   | 4<br>(데스크 겸<br>선임기자 1) | 0         | 5~6       |
| 이데일리     | 1   | 0   | 7<br>(선임기자 1)          | 0         | 0         |

12) A 신문사와 B 신문사의 경우 세부사항 언급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표에서는 구성 원별 인원수를 삭제하고 △으로 표시했다.

언론사별 번역 담당 조직의 구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00년 1월부터 영문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연합뉴스에서는 현재 국제국(한글 국제 뉴스 및 외국어 뉴스 서비스 관리) 소속 영문 뉴스부 기자 20명, 일반 기사와 경제 기사를 각각 담당하는 데스크 2명, 원어민 에디터 2명이 뉴스 번역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사의 한글 뉴스를 영어로 번역하는 업무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취재 기능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한글로 된 자사 및 타 언론사 기사를 기반으로 독립적이거나 추가적인 취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영문 기사를 생산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A 신문사는 약 10여 년 전 자사의 한글 기사를 영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출범했고 B 신문사는 2000년대 중반 영문판 웹사이트를 통해 한글로 된 자사 뉴스의 영어 번역 서비스를 시작했다. 두 신문사 모두 데스크, 원어민 에디터, 내부 혹은 외주 번역사 등이 뉴스 번역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경우 한국 자회사인 로이터코리아가 1995년부터 한글 번역 팀을 두고 영문으로 된 자사 기사를 한글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 4명의 기자가 뉴스 번역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력이 가장 오래된 선임 기자 1명과 한글팀(한글 취재팀과 한글 번역팀)을 총괄하는 팀장 1명이 데스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외주 번역사 5~6명이 내부 인력 근무 시간 외에 나오는 유럽 및 미국 기사를 한글로 번역한다.

지난 2000년 출범한 인터넷 경제신문사 이데일리에서는 편집국 소속 국제부가 다양한 외신들을 번역하고 있다. 취재 경력 약 15~16년의 선임 기자 1명을 포함한 기자 7명과 데스크 1명이 국제 뉴스 번역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구성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조사 대상 언론사 모두 독립적인 뉴스 번역 조직 하에 업무 책임자인 데스크 1~2명을 별도로 두고 있었는데 이는 언론사들이 뉴스 번역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언론사 내부에서 편집, 감수를 제외한 실질적 TT 작성 작업을 담당하는 뉴스 번역 참여자들에게 주로 기자라는 직함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번역사보다는 기자라는 직함을 선호하는 언론사 내부의 분위기, TT 작성자로서 번역사의 역할과 재량에 대한 인정 등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영한 번역 서비스 조사 대상인 로이터 통신과 이데일리가 에디터를 두

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한영 번역보다 영한 번역에서 TT에 대한 관용이 큼을 보여준다.

## 4.2. 업무 흐름 및 구성원 별 역할

### 4.2.1. 전반적 업무 흐름 및 구성원 별 역할

인터뷰를 기반으로 뉴스 번역에서 나타나는 게이트키퍼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기사 선정 → TT 작성 → 편집 → 감수 → 출고

여기에서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을 정리해보면 데스크는 처음과 마지막 단계인 기사 선정과 감수 및 출고를 통제하고, 기자나 외주 번역사는 첫 단계를 통과한 ST를 기반으로 TT를 작성하며, 에디터는 두 번째 단계에서 작성된 TT를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구성원 별 게이트키퍼 과정 개입 순서를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데스크 → 기자/외주 번역사 → 에디터 → 데스크

여기에서는 한영 번역과 영한 번역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단 영한 번역의 경우 편집 단계가 아예 없거나 한영 번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TT 독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문법을 수정하거나 표현을 다듬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터뷰 대상의 담화문을 기반으로 정리한 각 언론사별 뉴스 번역 업무의 순서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 4.2.2. 연합뉴스의 뉴스 번역 과정(한영)

기자들이 자사 및 타사 기사 및 출입처 일정 체크 후 데스크에 보고 → 데스크의 기사 아이템 선정 및 기사 방향 지시 → 기자들의 취재 및 TT 작성 → 원어민 에디터 편집 → 데스크 감수 및 출고

연합뉴스의 경우 데스크가 TT로 작성될 아이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특별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국장과의 논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한다. 외국인 에디터들은 기자들이 작성한 TT를 편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법을 수정하거나 문장을 다듬는 것 외에 기사를 크게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울러 한글과 영어의 기사 작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영문 기자들은 연합뉴스의 한글 기사를 단순히 영어로 옮기는 일은 하지 않는다. 대신 한글 뉴스의 내용을 따라 취재하는 방식으로 TT를 생산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며 한글 뉴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함께 진행한 뒤 같은 대상에 대해 영어로 텍스트를 작성하기도 한다.

#### 4.2.3. A 신문사의 뉴스 번역 과정(한영)

데스크의 기사 선정 및 배분 → 외주 번역사 TT 작성 → 원어민 에디터 편집 → 내부 번역사 감수 및 편집 → 데스크 감수 및 출고

A 신문사에서는 영문 뉴스팀 데스크가 선정한 기사를 외주 번역사들이 영어로 옮기는데 원어민 에디터는 TT만 편집하고 데스크와 내부 한국인 번역사들이 ST와 TT를 대조 검토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이렇게 수정된 TT는 최종적으로 데스크가 출고한다.

#### 4.2.4. B 신문사의 뉴스 번역 과정(한영)

데스크의 기사 선정 및 배분 → 외주 번역사 TT 작성 → 원어민 에디터 편집 → 데스크의 감수 및 출고

B 신문사에서는 영문판 데스크가 매일 저녁 기사를 선정하면 외주 번역사가 다음 날 아침까지 TT를 생산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뉴스 번역 업무가 진행된다. 데스크는 이 TT를 ST와 비교하고 에디터와의 상의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표현을 다듬은 뒤 출고한다.

#### 4.2.5. 로이터 통신의 뉴스 번역 과정(영한)

기자 근무 시간: 기자들(데스크 역할 선임 기자 1명 포함)의 주요 기사 공유 및 선정 → TT 작성 → 편집 → 출고

로이터 통신의 경우 기자들의 근무 시간에는 위와 같은 순서로 업무가 진행되며 전 과정을 한글 번역팀 기자 4명(데스크 역할 선임 기자 1명 포함)이 수행한다. 단, 특별히 중요한 사안의 경우 선임 기자 1명과 한글팀 총 책임자인 팀장 1명이 데스크로서 기사 선정, 출고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자 근무 시간 외: 로이터 지침에 기반한 외주 번역사들의 기사 선정 및 TT 작성 → 기자들(데스크 역할 선임 기자 1명 포함)의 출근 후 TT 편집 및 출고

기자들의 근무 시간 외에는 외주 번역사들이 기사 선정 및 TT 작성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 및 출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외주 번역사들이 매일 저녁과 익일 새벽 로이터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기사를 선정하고 TT를 작성한 뒤 이를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보내면 기자들이 오전에 출근해 이들 TT를 편집하고 출고하는 것이다. 기자들은 편집 과정에서 작성된 TT의 수치나 내용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고 상황에 맞게 리드(lead)<sup>13)</sup>를 변경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부각되도

13) 기사는 리드(도입부)와 본문으로 구성된다. 리드는 역(逆) 피라미드 구성의 첫 머리에 해당하는 만큼 기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압축적으로 포함된다. 리드 한 줄만 써도 전체 기사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윤석홍·김춘옥 2000: 189).

록 텍스트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또 TT 몇 개를 종합하고 배경 설명이나 코멘트를 추가해 새로운 TT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많다.

#### 4.2.6. 이데일리의 뉴스 번역 과정(영한)

기자들이 주요 국제 기사를 공유하고 데스크에 보고 → 데스크의 기사 아이템 선정 및 배분 → 기자들의 TT 생산 → 데스크의 감수 및 출고

국제부 기자들이 출근하자마자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 타임스(FT), 뉴욕 타임스(NYT), 니혼게이지 등 각자 맡은 외신을 확인한 뒤 주요 기사들을 서로 공유하고 데스크에게 보고한다. 데스크는 번역할 기사 아이템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 담당 기자에게 배분한 뒤 기자들이 생산한 TT를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출고한다.

### 4.3. 구성원 간 상호작용 및 권력 관계

#### 4.3.1. 데스크

이러한 업무 흐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게이트키퍼로서 각 구성원 사이의 수직적 권력 관계였다. 특히 언어 방향에 관계없이 데스크는 뉴스 번역 참여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이트키퍼로서 기사 선정 기준 결정, TT의 표현, 내용, 구성, 방향 변경, 최종 출고 여부 결정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순서도상 밑줄로 강조된 부분은 모든 데스크들이 뉴스 번역 과정의 첫 단계인 기사 선정과 마지막 단계인 출고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이트키퍼 과정의 처음과 마지막은 해당 언론사가 보도하는 기사의 양과 내용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번역사나 기자의 TT 작성, 에디터의 편집과 같은 중간 단계에서도 게이트키퍼가 일어나지만 처음과 마지막 단계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TT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작성된 TT라도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처음과 마지막 단계를 모두 데스크라

는 하나의 주체가 통제하고 있다는 점, 중간 단계의 게이트키퍼 역시 독립적이 라기보다 데스크의 지시와 피드백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은 데스크가 뉴스 번역 과정 전반에 걸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데일리 기사는 “데스크와 편집국장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이라며 데스크의 권한이 상당함을 강조했다. 데스크가 본인의 기준에 따라 미리 기사의 방향이나 구성을 지시하기도 하고 작성된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완, 첨가, 수정 등을 요구하거나 직접 기사 방향을 바꾸기도 하며 심지어 출고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기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반박하기도 하지만 결국 데스크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 신문사와 B 신문사의 데스크 역시 기사를 선정해 번역사들에게 분배하는 게이트키퍼의 첫 단계와 작성된 TT를 검토하고 수정해 출고하는 최종 단계에서 결정권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뉴스 번역 전반에서 가장 큰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B 신문사 데스크는 기사의 선택, 편집, 출고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본인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4.3.2. 에디터/외주 번역사 vs. 기자/내부 번역사

데스크 외의 뉴스 번역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비대칭적 권력 관계가 나타났다. 언론사마다 뉴스 번역 과정 참여자들의 구성이 달랐기 때문에 기자와 내부 번역사, 에디터와 외주 번역사 사이의 관계를 뚜렷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기자와 에디터, 기자와 외주 번역사, 내부 번역사와 에디터, 내부 번역사와 외주 번역사 등 조사 대상 가운데 비교가 가능한 참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기사 번역 과정에서 의견 충돌 시 영향력이 우세한 쪽을 살펴본 결과, 기자/내부 번역사는 에디터/외주 번역사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에디터의 경우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역시 언어 방향에 상관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에디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이데일리),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나 내부 번역사보다 권한이 약한 것으로(연합뉴스, 로이터, A 신문사) 나타났다. 이는 에디터들이 TT 작성 다음 단계의 게이트키퍼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기자나 번역사와 같은 TT 작성자보다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연합뉴스 기사는 에디터들이 문법을 고치고 문장을 다듬는 교정 (proofreading) 정도만 하며 배경 지식을 첨가하는 일도 거의 없다면서 “권한이 별로 없고 심지어는 기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서로의 기사에 대해 에디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이터 한글 번역팀의 경우 에디팅 담당자는 기자가 번역한 기사에 손을 많이 대지 않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상의하며 의견이 상충될 때는 기자의 의견을 따른다. 에디팅 담당자보다 기자로서의 권한이 우선한다는 의미다. A 신문사 번역사는 “최종 [결정권]은 우리 [내부 번역사들과 데스크]에게 있다”고 말해 내부 번역사의 권한이 에디터보다 우위에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한영 뉴스 번역에서 영어 원어민을 에디터로 두고 있는 언론사들은 한국어나 한국 상황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문법 및 표현 수정 외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B 신문사 데스크는 많은 경우 외주 번역사보다 에디터와의 의사소통이 더 오래 걸린다고 말해 원어민 에디터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영한 번역 조직들이 에디터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의 뉴스 번역에서 에디터의 정의가 매스커뮤니케이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와는 다름을 시사한다. 즉 뉴스 번역에서의 에디터는 본 논문의 서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텍스트의 관리 및 구성, 기사의 취사선택, 지면의 구성 등을 담당하는 텍스트 전문가라기보다 언어적 표현만을 다듬는 교정자 혹은 교열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외주 번역사 역시 기자나 내부 번역사에 비해 목소리가 약했다. 로이터의 경우 내부 인력 근무 시간 외에는 외주 번역사들이 기사를 선정하고 있지만 이미 로이터에서 전달한 엄격한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재량은 거의 없었으며 일단 번역된 기사를 로이터 내부 기자들이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언권도 없었다. 선임 기자와 팀장이 외주 번역팀과 2개월에 한번 씩 회의를 통해 의견 교환을 하지만 로이터의 영향력이 크고 외주 번역팀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로이터 기사는 말했다. A 신문사에서는 외주 번역사들이 작성하고 에디터들이 수정한 TT를 내부 번역사들이 편집하고 감수하는데

이견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는 거의 내부 번역사들이 원하는 방향이 반영되고 있었다.

끝으로, 에디터와 외주 번역사간 권력 관계는 언론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B 신문사 데스크는 현재 TT 작성을 담당하는 외주 번역사가 “에디터보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에디터가 TT를 크게 수정하는 일은 많지 않다면서 원어민 에디터의 발언권이 외주 번역사에 비해 약함을 시사했다. 반면 A 신문사의 경우 원어민 에디터가 외주 번역사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다. A 신문사 번역사는 “내용이 충실하기만 하다면 에디터는 외주 번역사가 생산한 TT의 구조나 표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굳이 따지자면 권한은 에디터에게 더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 대상 언론사 가운데 기자와 내부 번역사가 함께 뉴스 번역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권한 관계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

#### 4.3.3. ST 작성자 vs. 뉴스 번역 참여자

인터뷰 결과 뉴스 번역자들과 ST 작성자들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뉴스 번역 과정에서는 ST의 내용이나 표현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것보다 첨가, 보완, 재구성, 종합 등의 변형 전략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재구성, 종합 등의 보다 과감한 전략 활용이 두드러졌으며 ST에 독특한 관점을 더하거나 ST와는 별도의 자료 검색 및 독립적 취재를 통해 새로운 기사를 (재)창조하는 관행도 권장되거나 선호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들은 이러한 과감한 전략을 통해 기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여기에서도 언어 방향성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뉴스 번역 과정에서 ST나 ST 작성자에 대한 충실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번역 참여자들은 ST 작성자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데일리 기자는 “급하게 나가는 속보성 단신은 직역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밖의 기사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 발췌하는 재구성, 재가공 등의 전략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특별히 중요한 사안에 대한 분석 혹은 해설 기사의 경우 주요 외신에 나온 코멘트와 분석 부분을 취합해 하나의 새로운 기사 형태로 재가공하는 일이 많았다.

B 신문사 데스크 역시 원문의 품질이 떨어질 경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고 해설을 덧붙여 하나의 독립적인 기사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ST 기사를 TT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과감하게 변형하는 전략을 ‘업그레йд’라고 표현했다.

A 신문사의 경우 ST에 대한 충실성, 언론사의 성향보다는 가독성, 객관성을 중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설명 추가, 문단 재구성 등 융통성을 발휘하는 번역사나 에디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4. 인터뷰 결과를 반영한 수정 게이트키퍼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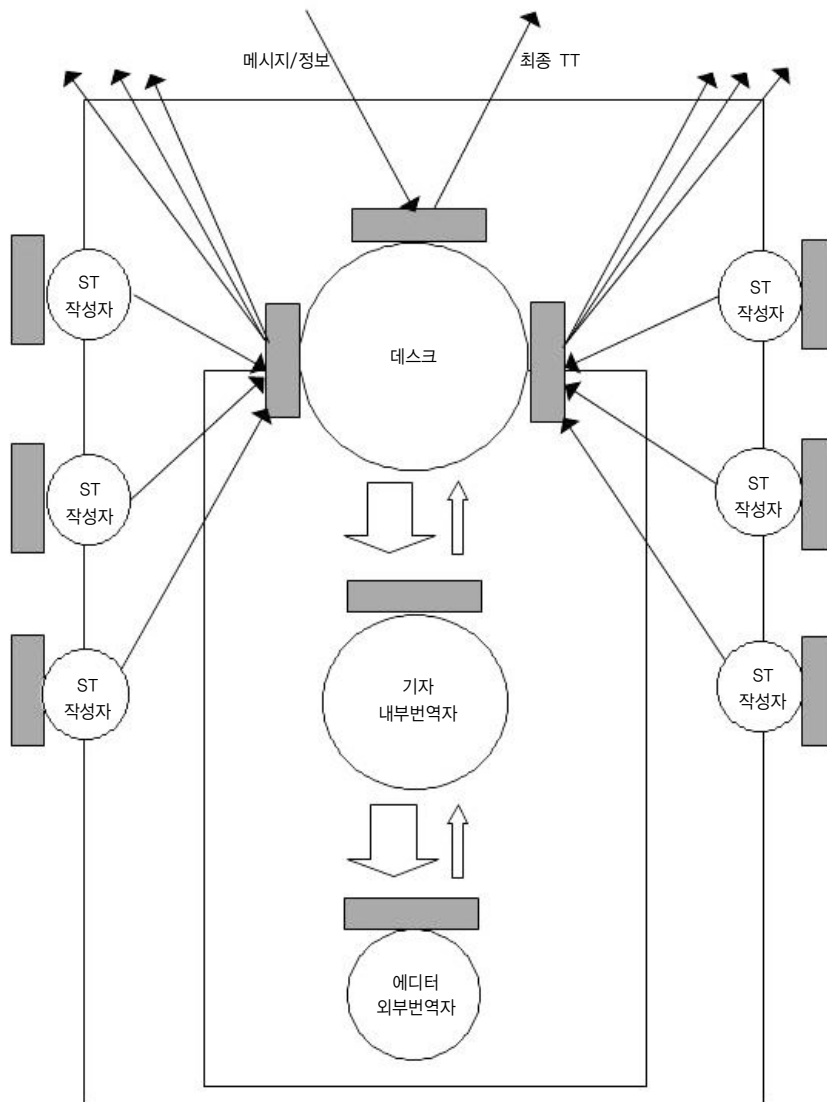
위의 논의를 종합, 각 뉴스 번역 참여자들 간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표3>과 같다.

<표3> 뉴스 번역 참여자들 간 의견 충돌 시 영향력의 크기

|                            |
|----------------------------|
| 데스크 > 기자/내부 번역사, 에디터/외주번역사 |
| 기자 > 에디터, 외주 번역사           |
| 내부 번역사 > 에디터, 외주 번역사       |
| 에디터 ≧ 외주 번역사               |

결국 게이트키퍼로서 뉴스 번역 참여자들 사이에는 에디터/외주 번역사, 기자/내부 번역사, 데스크의 순으로 권한이 강해지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데스크는 게이트키퍼의 처음과 마지막 단계에 위치해 메시지나 정보의 유출입을 통제하는 동시에 뉴스 번역 과정의 모든 의사소통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상위 게이트키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게이트키퍼들 사이의 비대칭적 권력의 크기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직 내외로의 메시지 유출입이 서로 다른 여러 명의 경계역할 게이트키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슈메이커의 모델로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슈메이커의 조직 내 게이트키퍼 모델을 수정 보완, <그림 2>와 같은 한국 뉴스 번역 조직 내 게이트키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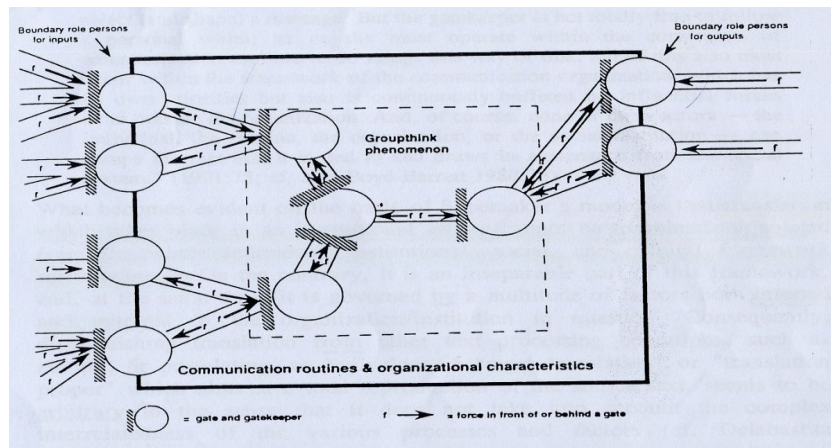
〈그림2〉 한국 뉴스 번역 조직 내 게이트키퍼 모델  
vs.  
슈메이커의 조직 내 게이트키퍼 모델



\*도형 설명

|                  |  |
|------------------|--|
| 직사각형             | 커뮤니케이션 조직(ex. 뉴스 통신사, 신문사)   |
| 원                | 데스크 기자, 에디터, 내부 및 외주 번역사 등 국제 뉴스 번역 과정의 개별 게이트키퍼. 원의 크기는 권한의 강도를 나타냄.  |
| 직사각형 가장자리의 원     | “경계역할(boundary role)” 게이트키퍼로, 다른 조직 및 외부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투입과 산출을 여과(Shoemaker 1991: 17, 56-57). 여기서는 뉴스 번역 참여자들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조직(자사) 내 ST 작성자. |
| 원 옆의 회색 수직 막대    | 게이트  |
| 선 화살표            | 메시지나 정보의 이동 방향. 메시지나 정보는 게이트를 통해 들어온 뒤, 역시 게이트를 통해 최종 TT의 형태로 나감.  |
| 블록 화살표           | 의사소통 방향. 화살표의 굵기는 권한 및 발언권의 강도를 나타냄.   |
| 직사각형 내부의 실선 직사각형 | 언론사 내 독립적 국제 뉴스 번역 조직  |

슈메이커의 조직 내 게이트키퍼 모델(1991: 73) (출처: Vuorinen 1995: 167)



## \*도형 설명

|                    |  |
|--------------------|--|
| 짧은 실선<br>사각형       | 커뮤니케이션 조직(ex. 뉴스 통신사, 신문사)   |
| 원                  | 개별 게이트키퍼   |
| 사각형<br>가장자리의 원     | “경계역할(boundary role)” 게이트키퍼로, 유출입되는 메시지나 정보를 여과하면서 다른 조직 및 외부 사람들과 상호작용(Shoemaker 1991: 17, 56-57). 왼쪽은 유입되는 메시지나 정보를, 오른쪽은 유출되는 메시지나 정보를 담당하는 경계역할 게이트키퍼. |
| 원 옆의 회색<br>수직 막대   | 게이트  |
| 화살표                | 메시지의 게이트 통과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forces)   |
| 화살표를 둘러싼<br>직선     |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메시지나 잠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로(channels).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경로들이 각 게이트 및 게이트키퍼로 들어가거나 이들로부터 나옴.  |
| 직사각형 내부의<br>점선 사각형 |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 집단사고 현상(groupthink phenomenon) <sup>14)</sup>  |

<그림2>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한국 뉴스 번역 조직 내 게이트키퍼 모델과 그 기반이 된 슈메이커의 조직 내 게이트키퍼 모델을 비교한 것으로, 새로운 모델에서는 정보와 메시지가 데스크 한 사람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현상이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날 뿐 아니라 게이트키퍼들 간 권력 강도의 차이가 도형의 크기와 굵기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은 우선 선 화살표를 활용, 정보나 메시지가 최상위 게이트키퍼인 데스크로 들어간 뒤 최종 TT의 형태로 다시 데스크에서 나오는 현상을 명확하

14) 사람들이 결속력 있는 내집단(ingroup: 개인이 규범·가치·습관·태도 등에서 공통점을 느껴 동지의식(同志意識)을 가지고 집단에 대해 애착·충성의 태도로 임하는 집단에 깊이 관여할 때 나타나는 사고방식으로, 완전한 합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열망이 강해 그 밖의 행동 대안들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현상(Jamies 1983, Shoemaker 1991: 28 재인용). 집단사고는 자기 집단의 권력 및 도덕에 대한 과대평가, 편협성, 집단 구성원에 대한 획일성 압력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Shoemaker 1991: 29).

게 반영하고 있다. 슈메이커의 모델에서는 정보나 메시지가 서로 다른 여러 명의 경계역할 게이팅키퍼를 통해 조직 내로 유입되거나 조직 밖으로 유출되는 반면 새 모델에서는 정보나 메시지가 데스크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다.

둘째로, 뉴스 번역 서비스 조직 내 데스크, 기자, 에디터를 수직선상에 위치 시킴으로써 이들 사이의 위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에디터/외주 번역사 → 기자/내부 번역사 → 데스크로 갈수록 원을 크게 표시하고 데스크에서 기자/내부 번역사로, 기자/내부 번역사에서 에디터/외주 번역사로 가는 방향의 화살표를 반대 방향보다 굵게 그림으로써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같은 조직(자사) 내 ST 작성자는 경계역할 게이팅키퍼로 볼 수 있으며 뉴스 번역 담당자들에 비해 권한이 약했던 만큼 가장 작은 원으로 표시했다. 이는 게이팅키퍼들 사이를 연결하는 메시지 경로 속 화살표가 동일한 굵기로 표시되어 있어 각 게이팅키퍼의 발언권이나 권력의 차이가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던 슈메이커 모델을 한국의 뉴스 번역 현실에 맞춰 수정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슈메이커의 모델에서 점선의 사각형으로 표시된 집단사고 현상(groupthink phenomenon)의 경우 조사 대상 언론사 모두 별도의 국제 뉴스 번역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실선을 점선으로 대체함으로써 추상적인 현상이 아닌 물리적인 조직의 존재를 강조하고자 했다.

## 5. 결론

### 5.1. 연구 결과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게이팅키퍼로서 뉴스 번역 참여자들의 역할과 이들 간 실제 상호작용 및 권력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언어 방향과 상관없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데스크, 기자, 에디터, 내부 및 외주 번역사 등 뉴스 번역 참여자들은 직함과 실제 역할 사이에 괴리가 있거나 하나의 직함 하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취재, 번역, 편집, 감수 등 여러 가지 텍스트 처리 작업이 개입되는 복잡한 뉴스 번역 과정에서 각 업무 영역 간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러한 업무를 모두 ‘뉴스 번역’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본 연구의 관점이 유용함을 뒷받침한다.

둘째, 게이트키퍼로서 뉴스 번역 참여자들 사이에는 데스크가 최상위에 위치한 수직적 권력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에디터/외주 번역사, 기자/내부 번역사, 데스크 순으로 권한이 강해지는 위계 질서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비대칭적 위계와 상대적 권력의 강도를 게이트키퍼 모델 가운데 비교적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평가 받는 슈메이커의 모델에 반영,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한국 내 언론사의 뉴스 번역 업무와 조직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뉴스 번역 현장의 상호작용과 권력 관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물론 인터뷰 기간 및 대상이 제한되어 외주 번역사와 에디터, 내부 번역사와 기자 사이의 권력 관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라 하겠다. 아울러 한국어와 영어 간 번역, 활자 뉴스 번역에만 국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 역시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모델 구축을 위해 인터뷰 대상, 언어, 매체 유형 등 조사 대상을 더욱 다양화하고 조사 기간도 확대하여 연구에서 제시된 수정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후속 연구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실제 뉴스 텍스트 번역 사례 분석을 추가, 뉴스 번역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권력 관계가 번역 과정 및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도 장기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심층 인터뷰나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재와 같은 권력 관계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규명하거나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언론사 별 차이를 고찰하는 것도 흥

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국가마다 기자, 에디터, 번역사의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뉴스 번역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 관계를 국가 별로 조사하는 연구 역시 학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인터뷰 대상들 사이에 보다 과감한 텍스트 변형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된 만큼, 현재 뉴스 번역 영역 내 지배 규범과 그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수정 (2011) 「중국 뉴스매체의 한국뉴스 편역보도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 연구』 15(1): 1-27.
- 강지혜 (2008a) 「번역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번역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7-43.
- \_\_\_\_\_ (2008b) 「번역에서 인용의 문제: CNN.com 뉴스텍스트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4): 7-40.
- 고경태 (2009) 『유혹하는 에디터』, 서울: 한겨레출판.
- 곽중철 (2000) 「해외 TV 보도 통역, 번역 방법론」, 『통번역학연구』 4(-): 1-30.
- 김경환 · 김지용 (2009) 『기사&편집』, 서울: 미디어포럼.
- 김진원 (2010) 「내러티브 관점에서 본 뉴스미디어 번역기사의 프레이밍 분석」, 서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한식 (2010) 「가독성의 요인별 표현 분석을 통한 번역전략 연구 : 한일 기사문을 중심으로」,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 박미정 (2011) 「인터넷 신문 국제기사 한일번역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통번역학연구』 14(2): 107-130.
- 서주희 (2012)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을 기반으로 한 영한 뉴스 미디어 번역에서 평가적 의미의 번역 전이 양상」, 부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병찬 (1993) 『신문 · 방송기자가 되는 길』, 서울: 자유문고.

- 왕조외 (2006) 「한중 오역 분석 연구: 동아일보 중문판을 중심으로」,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석홍·김춘옥 (2000) 『신문과 방송, 취재와 보도』, 서울: 나남출판.
- 이미경 (2011) 「도착언어 독자 지식을 고려한 뉴스번역 전략: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언어연구』 28(2): 385-404.
- 이주리아 (2011) 「기사문 번역의 재맥락화 양상에 대한 일고찰」, 『번역학연구』 12(2): 157-184.
- 이지연 (2006) 「TV 방송 기사 번역의 특성과 전략」, 서울: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7) 「TV 방송 뉴스 번역의 특성: 격식성과 정중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263-282.
- 이창수 (2004) 「번역에서의 정보구조 변화: 방송뉴스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6(1): 137-153.
- 이향 (2003) 「번역물 감수(revision)의 정의」,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5(1): 163-81.
- 최희경 (2012) 「IT 뉴스 영한 번역에 나타난 영어의 영향」, 『통번역학연구』 16(2): 261-291.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 한국 ABC 협회, <http://www.kabc.or.kr/>
- 황은하 (2009) 「한·중 인터넷 신문 기사 표제 병렬말뭉치 연구」, 『번역학연구』 10(3): 217-245.
- Bani, Sara (2006) 'An Analysis of Press Translation Process' in Bassnett, Susan and Kyle Conway (eds) *Translation in Global New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Warwick, 23 June 2006, Warwick Working Papers*, Coventry, UK: U of Warwick Centre for Translation and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35-45.
- Bassnett, Susan (2004) 'What Exactly Did Saddam Say?', *The Linguist* 43(6): 176-78.
- Bassnett, Susan and Kyle Conway (eds) (2006) *Translation in Global New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Warwick, 23*

June 2006, *Warwick Working Papers*, Coventry, UK: U of Warwick Centre for Translation and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Cheng, Maria (2002) 'The Principles and Strategies of Trans-editing for the News Media',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7: 113-34.

Delabastita, Dirk (1989) 'Translation and Mass-communication: Film and T.V. Translation as Evidence of Cultural Dynamics', *Babel* 35(4): 193-218.

Fujii, Akio (1988) 'News Translation in Japan', *Meta* X X X III(1): 32-37.

Holz-Manttari, Justa (1984) *Translatorisches Handeln: Theorie und Methode*,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Horguelin, Paul A and Louise Brunette (1998) *Pratique de la révision*, Brossard (Québec): Linguattech.

Kukkonen, Tiina (1989) 'Translatorinen ja journalistinen toiminta Suomen Tietotoimiston ulkomaantoimituksessa'. Unpublished MA thesis. Tampere: University of Tampere, Department of Translation Studies.

Li, Defeng (2001) 'Adaptive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News from English to Chinese: An Exploration of Methods',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6: 47-60.

Lefevere, Andre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Routledge.

McNelly, John T (1959) 'Intermediary Communicators in the International Flow of News', *Journalism Quarterly* 36: 23-26.

Munday, Jeremy (2008)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 Theories and Applications* (2nd), London & New York: Routledge.

Offor, Marja-Riitta (1993) 'Kulttuurispesifinen adaptaatio uutissahkeiden kaantamisessa'. Unpublished MA thesis. Turku: University of Turku, Department of Translation Studies.

Richards, Keith (2009) 'Interviews' in Heigham, Juanita and Robert Croker (eds) *Qualitative Research in Applied Linguistics: A Practical Introductio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182 - 99.

Shoemaker, Pamela J (1991) *Communication Concepts 3: Gatekeeping*,

Newbury Park: Sage.

Tsai, Claire (2005) 'Inside the Television Newsroom: An Insider's View of International News Translation in Taiwan',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2): 145-53.

Vuorinen, Erka (1990) 'Kaantamistyön ohjautumisesta sanomalehden toimitusprosessissa - esimerkkitapauksena Turun Sanomat'. Unpublished MA thesis. Turku: University of Turku, Department of Translation Studies.

Vuorinen, Erka (1995) 'News Translation as Gatekeeping' in Snell-Hornby, Mary, Jettmarova Zuzana, and Kaindl Klaus (eds),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61-71.

Westley, Bruce and Malcolm MacLean (1957) 'A Conceptual Model of Communication Research', *Journalism Quarterly* 65: 27-31.

<부록1> 뉴스 번역 참여자 간 상호작용 및 권력 관계 인터뷰 질문지

1. 뉴스 번역 담당 조직의 구성 및 구성원
  - 1.1. 인터뷰 대상 직함 및 경력
  - 1.2. 번역사, 에디터, 기자, 데스크 등 소속 언론사 뉴스 번역 참여자의 전체 숫자와 경력
  
2. 전반적 업무 흐름 및 구성원 별 역할
  - 2.1. 일반적인 뉴스 번역 순서
    - 통상 뉴스 번역 과정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집니까?
  - 2.2. 구성원 별 역할
    - 기사 선정, 번역, 편집, 감수, 출고 등 각 게이트키퍼 과정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진행됩니까?
  
3. 구성원 권한 및 의사소통
  - 3.1. 구성원 별 권한
    - 번역사, 기자, 에디터, 데스크 등은 게이트키퍼로서 어느 정도의 재량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 각 게이트키퍼 단계는 최종적인 TT 형태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까?
    - 기사 선정과 출고 단계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까?
    - 각 게이트키퍼 단계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까?
  - 3.2. 각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 뉴스 번역 참여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뉴스 번역 참여자들 사이에 의견이 상충될 때는 누구의 의견이 반영되는 편입니까?
    - 모든 게이트키퍼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ST 작성자(자사 내 기사 작성자 혹은 외신 기사 작성자)와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bstract]

**Power Relations among News Translation Participants in South Korea:  
A Proposal for Revision to  
Shoemaker's Gatekeeping Model**

Hong, Jungmi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looks into the interactions and power relations among the professionals engaged in news translation as gatekeepers in South Korea in an attempt to propose a plausible and realistic model to explain the country's news translation environment.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five news translation participants, including in-house translator, reporter, editor and desk at as many news organizations operating in the nation, revealed vertical and asymmetrical power relations among them, where (1) desks, with greatest authority, control almost every stage of news translation process; (2) in-house translators and reporters have relatively smaller power while freelance translators and editors hold the least say. Notably, the second finding is against the author's expectation that editors may be given more authority than translators, indicating that the definition of an editor involved in news translation in South Korea is close to a proofreader whose main job is minor linguistic adjustment, far from the definition of an editor in the mass communication studies which is often associated with more drastic modification and reorganization of texts, and sometimes managerial and policy-making responsibility for the editorial part of a newspaper, magazine or other public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proposed a revision to Shoemaker's gatekeeping model(1991), which is seen as a more recent and comprehensive gatekeeping model. More specifically, the proposed model

effectively illustrates the unequal power relations among news translation participants by using varying size and thickness of figures, while Shoemaker's one pays little attention to the different degrees of author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wo aspects. First of all, it will help prospective professionals in the news translation better understand and prepare for the actual working environment. Secondly, it will facilitate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the Translation studies and communication research by providing useful and valuable data on the nation's news translation practice which will be relevant to both areas.

▶ Key Words: gatekeeping, news translation participants, interactions, power relations, Shoemaker's gatekeeping model

홍정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번역학 전공

drew97@naver.com

관심분야: 뉴스 및 미디어 번역, 직업 교육

논문투고일: 2012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18일